

지면안내

**02** 사상 초유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 대학본부 “절대평가 도입, 일부 과목 대면강의 실시”  
보도

**03**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 붓물처럼 터져 나와  
사회

**04** 집밖보다 재미있는 ‘집콕’ 라이프  
문화

**08** 한성대, 사회적 거리는 넓게 안전과 거리는 좁게  
사진기획



▲ 텅 비어있는 상상관 3층 강의실의 모습이다. 지난 21일, 본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발표했다. 이에 본교는 “학교에 한 번도 등교하지 못한 신입생과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학기말에 2~3주 정도 대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삼선제5구역 철거 초읽기, 본부의 안전대책은?

본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가 포함된 삼선제5구역의 철거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 4월 7일부터 20일까지 ▲건축물 철거감리업체 ▲빛공해심의업체 ▲국공유지 유상매수 대행 용역업체 ▲구조골토심의업체 ▲통수능력검토 및 수방대책수립업체 등 5개 협력업체의 입찰을 진행했다.

재개발조합은 8월에서 9월까지 철거를 완료해 2023년 재개발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삼선제5구역의 일부 거주자가 이주를 마치지 않아 구체적인 철거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거가 시작되면 삼선제5구역에 속한 정문 진입로, 우촌관 중문길, 탐구관 후면 경사로 등의 주요 통학로에 변화가 생긴다. 박창우(시설지원팀) 팀장은 “재개발이 이뤄지면 정문 진입로는 확장되고 우촌관 중문 길과 탐구관 후면 경사로는 폐쇄될 사릴 예정이다. 그러나

정문 진입로에 인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확보될 때까지 우촌관 중문 길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구체적인 철거일정이 정해져 통학길에 변동이 생길 경우 교내 홈페이지, 한성대신문사, 총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뀐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선제5구역의 재개발로 대학본부와 재단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월 본부는 안심거리 조성, 학생자치 규율대 등의 대책을 성북구청과 재개발조합에 전했다. 안 팀장은 “인근에 위치한 인암 파출소에 주요 통학로 3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캠퍼스와 학생 자치 규율대를 통해 야간에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팀장은 “한성대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재단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공사통과를 막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재난장학금 조건부 지급, 총학생회비는 환불 예정

대학본부 “코로나19 종식 후 재난장학금 조건부 지급 예정”

총학생회 “총학생회비 신청자에 한해 학기 말 환불”

지난 17일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이하 2차 간담회)에서 대학본부는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 대신 장학금을 조건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같은 날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낙산의 메아리를 통해 “신청자에 한해 총학생회비를 환불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월 2일부터 5일까지 총학생회 한결이

재학생 9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717명(73.8%)의 응답자가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건의사항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 학교 시설 이용 제한 등을 이유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했다. 또한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총학생회비 환불 요구가 불거졌다. 총학생회의 학내 프로그램 및 복지 사업 진행 불가 등이 그 이유다.

2차 간담회를 통해 이창원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공식 종결 후 최근 3년간 회계 비목별 평균 교비와 코로나19로 인한 회계 비목별 평균 교비를 공개, 비교할 예정”이라며 “예산이 감소한 부분이 있다면 장학금 지급으로 돌릴 예정”

이라고 전했다. 김효용 대외협력처장은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학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재난 모금 운동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은 재난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본교의 방침에 대해 “학교에 예산 공개를 요구해 학우들에게 등록금 환불 불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학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총학생회비를 총학생회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즉시 환불은 어렵다. 학기 말 일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2면에 계속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곧 폐쇄될 우촌관 중문 길의 모습이다.

## 제14회 사진공모전

빛으로 그려내는 프레임 속 세상 ✨



**모집기간**  
4월 6일(월) ~ 5월 15일(금)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제출 :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② 오프라인 제출 :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 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57호 (6월 8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佳作 1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장선아 편집국장 010-9786-9709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4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 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 사상 초유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 대학본부 “절대평가 도입, 일부 과목 대면강의 실시”

지난 21일, 대학본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알렸다. 5월 3일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강의가 1학기 종강일인 6월 27일까지 시행된다.

앞선 17일,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온라인 강의 연장 여부 및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염두에 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원 총장, 각 부서의 처장 및 팀장 등 대학본부 관계자 16명과 박민수(컴공 4)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등록금 환불 여부(1면 기사 참조) ▲중간고사 시행방식 및 성적평가 기준 ▲실습·실기 강의 대책 ▲수업 관련 건의사항 조치 이행 여부 ▲휴학 신청기간 연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학기 성적평가 절대평가로 전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중간·기말고사 모두 비대면 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말고사의 경우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다.

2차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는 성적평가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에서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조혜경 교무처장은 “학생들과 논의하는 중이며 절대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수에게 공지를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절대평가 진행 시 정교하고 확실한 평가 기준으로 성적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적평가에서 중간고사 비율을 줄일 것을 교수들에게 요청했다”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픈북, 난이도 조절, 원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온라인 시험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27일부터 일부 실습·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강의 실시”**

공지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는 일부 실습·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본부는 처장 및 단과대학 학장, 방역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제한적 대면 수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제한적 대면수업 특별위원회’ 결정에 의거, 안전 확보가 판단된 일부 실습·실기 강의에 한해 대면강의를 허용한다. 일반강의는 코로나19 경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4월 27일부터 진행될 대면강의 방식의 대책이 언급됐다. 조 처장은 “장비, 공간 등은

1일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즉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습실 사용은 교수의 관리 하에 가능하다”며 “교내 1일 수용 학생을 150명으로 한정해 일정을 나눠 트랙별 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정근 학생처장은 “실습·실기 강의는 회화과와 무용과가 가장 시급하다. 수강정원이 20명인 강의에서 5명을 실습에 참여시킨 후 이를 촬영해 나머지 15명은 온라인으로 듣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교수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 전달”**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교수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학사운영팀이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화된 건의사항을 각 단과대학 교학팀이 보완하거나 학장이 해당 교수에게 전달한다.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교수에게 전달된 피드백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수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음질·품질에 문제가 있는 강의에 대해 “문제를 해결한 뒤 강의를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기공 3)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실습·실기 온라인 강의의 경우 교수와 학생 간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강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며 대책을 문 의했다. 조 처장은 “전산실습 강의는 실시간 강의를 통해 교수와 학생간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장비를 이용한 강의의 경우 좀 더 친절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교수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휴학 허용”**

간담회에서는 휴학 신청기간을 늘려달라는 학생대표의 요청도 있었다. 현재 분교는 새학기 시작 전에 약 한 달동안 일반휴학 신청을 받는다. 학기 중에는 군입영 휴학과 질병으로 인한 일반휴학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 질환 등 질병 우려 혹은 해외 귀국 등

특정한 상황에 한해 휴학 신청을 받고 있다. 조 처장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휴학 기간과 무관하게 휴학을 허용할 예정”이라며 “휴학을 원한다면 학사운영팀에 문의 달라”고 전했다.

휴학 신청으로 발생하는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상시 휴학을 받는 타대학의 경우 수업 경과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등록금 환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2020학년도 보궐선거, 마지막 단추 꺾다

지난 8·9일 양일간 ▲동아리연합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학)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이하 공과대학) ▲상상력인재학부 등 5개 중앙기구와 각 트랙·학부(과)의 보궐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5개 중앙기구와 각 트랙·학부(과) 모두 당선됐다.

**동아리연합회 ‘커넥트’ 선본 당선**

제34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는 재적 인원 967명 중 680명(70.32%)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커넥트’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송준서(역사 3) 정회장 후보와 김민서(컴공 3) 부회장 후보가 찬성 529표(77.79%), 반대 121표(17.79%), 무효 30표(4.41%)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동아리

연합회 유튜브 채널 운영 ▲우수 동아리원 공로상 수여 등이다. 송준서 당선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의 동아리가 활동을 중단한 것에 대해 “동아리 활동보단 안전이 우선”이라며 “단어 ‘커넥트’의 의미처럼 동아리들을 연결할 수 있는 동아리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문예술대학 ‘한빛’ 선본 당선**

제4대 인문예술대학 선거에는 재적 인원 1,279명 중 816명(63.8%)이 참여했다. ‘한빛’ 선본의 안상현(문정 3) 정학생회장 후보와 신승택(역사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682표(83.58%), 반대 104표(12.75%), 무효 30표(3.68%)를 받아 당선됐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학교생활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 ▲SNS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안상현 당선자는 “학우를 환하게 비추는 하나의 큰 빛이라는 ‘한빛’의 의미처럼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신승택 당선자는 “인문예술대학은 특히 실습·실기 강의가 많다. 보다 나은 수업 품질을 위해 각 과 학생회와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디자인대학 ‘스케치’ 선본 당선**

제3대 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에는 재적 인원 1,203명 중 716명(59.52%)이 투표에 나섰다. ‘스케치’ 선본의 김석원(패션 4) 정학생회장 후보와 김영재(ICT 3) 부학생회장 후보는 찬성 658표(91.90%), 반대

47표(6.56%), 무효 11표(1.54%)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간식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디자인대학 배움터 진행 등이다. 김석원 당선자는 “학교상황에 대비해 학우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소모임을 진행하고자 한다. 모임 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우들의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과대학 ‘동행’ 선본 당선**

제22대 공과대학 선거는 개표 결과, 재적 인원 2,101명 중 1,347명(64.1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동행’ 선본의 이지훈(기공 3) 정학생회장 후보와 유영선(IT융합 3)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1,077표(79.96%), 반대 205표(15.22%), 무효 65표(4.83%)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들은 ▲학내·외 소통 강화 ▲휴게 공간 및 시설물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지훈 당선자는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으로 실천하여 동참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건의함을 만들 것이다. 학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상상력인재학부 ‘해봄’ 선본 당선**

제4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 선거에는 재적 인원 305명 중 213명(69.84%)이 참여했다. ‘해봄’ 선본의

김영호(패션 2) 정학생회장 후보와 차정은(기공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199표(93.43%), 반대 10표(4.69%), 무효 4표(1.88%)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들은 주요공약으로 ▲카카오톡을 통한 소통 강화 ▲학내·외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꼽았다. 김영호 당선자는 “높은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학우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차정은 당선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상상력인재학부 내 학우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당선자는 “상상력인재학부가 신입생으로 이뤄진 만큼 이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봄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학생상담센터, 카톡 상담채널 개설

지난 3월 24일부터 분교 학생상담센터가 카카오톡(이하 카톡) 상담채널을 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생상담센터는 기존에 ▲집단생활심리상담 ▲심리검사 ▲유학생생활심리상담 ▲교육프로그램 등을 대면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개인상담에 한해 카톡 상담을 지원하게 됐다.

카톡 상담은 학생상담센터가 기존에 진행했던 상담과 동일하게

대인관계, 성격, 정서, 학습, 진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개강으로 발생하는 고민을 주제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분교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1:1 상담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카톡 검색창에 ‘한성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5pt가 지급될 예정이다. 김혜인(학생상담센터) 전임상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안

있던 학생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카톡 상담은 대면상담에 비해 치료 효과가 낮고 주기적인 상담을 이어가기엔 한계가 있지만 손쉽게 이용 가능해 오프라인 개강 이후에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카톡 상담채널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이용을 독려했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 잉글리쉬라운지, 잉글리쉬 코너 모집 게시

잉글리쉬라운지가 지난 3일부터 2020학년도 1학기 ‘English Corner’(이하 잉글리쉬 코너) 참가자 모집을 게시했다.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잉글리쉬 코너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회의·강의 프로그램인 ‘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

잉글리쉬 코너는 분교 재학생들에게 외국인 교수와의 1대

1 회화 및 에세이 첨삭 등을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약 10명의 외국인 교수가 참여했지만 이번 온라인 프로그램에는 조셉 베나블즈(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와 그랜트 천(교양영어교육과정) 2명만 참여한다. 회화 및 에세이의 주제는 자유이며, 참여 교수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인 ‘Current Topic’을 참고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한 학생에게는

참여 1회당 비교과 포인트 2pt가 지급될 예정이다.

문지영(교양영어교육과정) 조교는 “잉글리쉬 코너는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쓰기 능력 및 영어회화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 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 봇물처럼 터져 나와

지난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까지 전파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같은 달 5일, 전국 대학에 '개강 시점을 4주 이내 연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이에 각 대학은 개강 연기를 발표했고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3월 2일, 교육부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해 온라인 강의가 재연장됐다. 권고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자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온라인 강의 기간의 연장으로 실험·실습 과목이 갑자기 폐강되거나 등록금에 상응하지 못하는 질 낮은 강의가 업로드 된다"며 "갑작스런 기숙사 퇴사 공지와 자취방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정한 상태로 대학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성신여자대학교(이하 성신여대) 전대현 총학생회장은 "주거 문제·경제 문제·온라인 강의 플랫폼 문제 등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가의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교육 당국에 ▲등록금 반환 ▲수업 문제 해결 ▲대학생 주거 불안 및 생계 대책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4월 6일에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구안 관철'이라는 목적 하에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대넷에 소속된 각종 학생회(이하 총학)가 릴레이로 재난시국선언을 발표해 그 열기를 더해갔다. 릴레이 재난시국선언의 첫 주자로 성신여대 총학 '다원'이 나섰다. 이어 숙명여대,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총학도 차례로 재난시국선언을 이어갔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자 4월 7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대교협은 대학의 등록금 반환이 아닌 장학금 지급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전대넷은 "학생들의 요구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반환"이라며 반대했다. 그들은 '#대학생들은 지금 재난상황입니다', '#코로나19대학가대책마련'이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함과 동시에, 지난 14일 전국 203개의 대학과 21,78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 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9.2%가 '등록



▲지난 4월 7일, 숙명여대 총학 '모두'는 숙명여대 프라임관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대학생 재난 해결을 정부와 각 대학에 요구했다.

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중복응답)로 ▲원격수업(온라인 강의) 질이 떨어져서(82%)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78.6%) ▲경제적으로 부담돼서(37.4) 등을 들었다.

임 회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를 '시혜적인 혜택'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대학의 특별장학금은 본질을 흐린다"며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에 책임

을 묻고 있지만, 대학은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학가와 다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효은(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 만족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고정 비용 등 대학에는 다양한 지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재정적인 손실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전히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혜지(전대넷) 집행위원장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누적된 고통을 이해하는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둘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대학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3일, 박백범(교육부) 차관은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제 등록금을 반환할 것인지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달렸다. 대학가의 끊임없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각 대학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 온라인 강의 사각지대에 빠진 농아대학생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 온라인 강의가 도입된 후, 농아(청각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월 9일, 한국농아인협회·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8개 청각장애인 단체들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청각장애인 단체들은 "많은 강의에서 자막이나 수어 통역 등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없다"며 "농아 대학생들이 원격으로 수어 통역을 지원 받더라도 연결이 불안정해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3월 20일, 국민인권위원회 앞에서 농아대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4월 6일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농아대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현행법에서 교육 책임자의 농아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농아대학생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수어 통역, 속기 등의 사소통 수단 지원의무, 제21조에는 농아대학생 전자정보 및 전자정보 접근 형평성을 이유로 수어 등의 필요 수단 지원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 수어 통역, 속기 등의 비용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지원만 담당

하고 세부적인 영역은 대학이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창욱(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대부분의 대학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추측만으로 농아대학생을 지원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장애 이해 교육으로는 청각장애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농아대학생에 대한 무관심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농아대학생에 무지한 상태로 지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각 대학은 농아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사전 수업 자료 제공, 전문 수어통역사 도입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사전 수업자료 제공은 농아대학생의 강의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

게 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청각장애인에게 교육은 받을 때 예습, 본 학습, 복습의 절차가 기본이다. 수업 전에 수업자료를 제공받아야 자막 지원 시 수업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어통역사 도입도 수어 통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강 교수는 "전공수업 수어 통역은 어려운 작업"이라며, "한국 수어는 의미를 중심으로 통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어 통역사가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통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확대와 대학의 시스템 미비가 겹치면서 농아대학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 대학가를 덮은 질병의 화마가 사라지기 전까지 농아대학생들이 강의 사각지대를 빠져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준수 기자 jseo53493@gmail.com



▲4월 6일, 한국농아인협회 등 6개 청각장애인 단체들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농아대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 기자가 읽어주는 경제 TALK

### 주식 투자가 부른 뜻밖의 결과, 동학개미운동

지난 3월, 약 11년 만에 코스피가 15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월 28일 1987.01로 마감했고 3월 19일에는 1457.64까지 하락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식 값이 폭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 원인이 됐다. 3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 매도 규모가 13조 5천억 원에 육박해, 국내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국내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이 몰려온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3월 한 달 동안 개인투자자의 매수 규모가 14조 9천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6조 3천억 원, 2월 6조 원이었던 것보다 약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이 3월에 주식을 많이 구매한 이유 중 하나는 주식가격의 큰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투자자들이 '주기는 한번 폭락하면 반등한다'는 경험

을 얻은 것에서 기인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506.07이었던 코스피는 IMF(국제통화기금)에 긴급자금 지원 요청 이후 한 달 만에 351.45까지 떨어졌다. 이후 1998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278%나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400대였던 코스피가 두 달 만에 900대까지 떨어졌고, 이후 2008년 11월부터 30개월간 137%가 올랐다.

이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몰려온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행렬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인한 국내시장의 타격을 완화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3월 코스피 지수가 2000대에서 지난달 1400대로 약 30% 급락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 지난 4월 17일 1914로 급등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행렬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개인투자자들의 모습을,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패와 일제침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것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시장에 일명 '개미'라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것"이라며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자신을 일종의 현대적, 경제적 의병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인 투자가 국가적 손실을 막아내는 모습은 역설적이다.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든 개인투자자들의 행동이 결국 주식 시장의 타격을 완화하는 '공적인 이익'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4월 말을 바라보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증가세는 여전히 기쁘다. '동학농민운동'은 1895년 전봉준의 처형과 함께 미완의 혁명으로 남은 바 있다. '동학개미운동'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순매수 :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거래 상태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 집밖보다 재미있는 '집콕' 라이프



## 지루함을 휘젓는 달콤함, 달고나 커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시행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내 여가 생활 관련 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최대 9배 증가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홈쿠킹 레시피와 다양한 '집콕' 챌린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다양한 관람시설도 온라인 전시관을 개설했다.

이제, 집은 먹고 자는 휴식의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테마파크가 되고 있다. 본교 이지영(상상력교양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찾고, 즐기고, 공유함으로써 사람 간의 소통과 공감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코로나19로 무료해진 일상에 마침표를 찍고, 학우들에게 다양한 집콕 라이프를 소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집콕 문화를 직접 접해봤다. 어떤 이는 집안에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활동적인 체험을 하기도 어렵다고 투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가 겪은 집콕 문화는 이런 선입견들을 깨기에 충분했다. 집콕은 집밖보다 재밌었다. 집에서 충분히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기자가 체험한 집콕 라이프의 정수를 모아봤다. 함께 느낄 준비가 됐는가.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커피와 설탕을 1대 1의 비율로 그릇에 부었다. 커피가루와 설탕이 수북하게 쌓였다. 400번이나 휘젓는 생각을 하니 시작하기도 전에 팔이 빠근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기자는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달고나 커피를 마시며 뿌듯함을 느꼈다. 유튜브 속 실패사례는 먼 나라 이야기. 투명한 와인잔을 가득 채운 달고나 커피의 자태가 그려졌다.



우유 위에 혼신의 노력이 담긴 달고나를 띄웠다. 달고나를 우유 위에 올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이었다. 되직한 달고나 덩어리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달고나 커피의 모습처럼 평평하게 담기지 않았다. '조금만 더 달고나가 평평했으면 완벽했을 텐데...'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쉬움이 밀려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고나가 평평해지면서 머릿속에

달고나 커피. 분당 몇 천rpm을 뽑아내는 기계와 함께라면 금방 만들어내는 간단한 음료다. 그런데 요즘 손으로 수백 번씩 휘저어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지루해진 일상에 벗어나기 위해 '휘젓는다'는 단순한 행위에 몰입하는 사람들. 불편함을 감수하며 지루함을 이겨내려는 노력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

기자 역시 코로나19가 가져온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마스크를 쓰고 마트로 달려가 인스턴트 커피, 우유, 설탕을 샀다. 커피와 설탕을 녹이기 위해 물과 거품기도 구비했다. 여기에 지루함까지 휘저어버릴 강인한 팔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신문사 기자들에게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본격적으로 소매를 견고 거품기를 잡았다.

달콤한 상상을 접어두고 손가락으로 물을 부었다. 한 순간 그리고 두순갈 물이 더해지면서, 커피와 설탕이 자박자박하게 섞였다. 되직한 커피와 설탕 덩어리를 보면서 "괜히 만든다고 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다.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우직하게 휘젓는 수밖에. 거품기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챙, 챙, 챙. 거품기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어두운 갈색 빛이 돌던 커피는 점점 밝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물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섞이지 못한 커피 알갱이가 얼룩덜룩한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물을 더 부어 알갱이를 녹여야 했지만, '여기에 물을 더 넣으면 묽어지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에 섣불리 나서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팔까지 아파오기 시작했다. 손가락보다 편하다는 거품기까지 준비해 저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20분이 넘는 시간동안 젓고 또 저었다. 코로나19로 느꼈던 지루함도, 팔이 아프다는 생각도 휘젓는 행위 앞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새 되직한 덩어리가 부드럽게 풀렸다. 이제 잔으로 옮길 일만 남았다.

그리던 완벽한 달고나 커피가 완성됐다.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달고나 커피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잔 속 달고나와 우유를 섞은 뒤, 한 모금 마셨다. 카페라떼를 마신 느낌이었다.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왜 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지 조금 이해가 됐다. 잠시 지루함을 잊게 만드는 몰입감과 다 만든 후의 달콤함. 달고나 커피 만들기는 즐거운 경험이었다.



## 집안에서 즐기는 현장감과 친절함, 온라인 전시회

코로나19가 밖을 점령한 지금, 대부분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휴관하고 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박물관에 들러 지식을 충전하고 싶지만, 어느 곳도 갈 수 없다는 현실에 마음이 착잡하다. 그러나 실망하기는 이르다. 햇살은 즐길 수 없지만, 박물관 속에 잠들어 있는 전시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바로 온라인 전시 서비스다.

기자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관에 접속했다. 글로컬역사문화트랙을 전공하고 있는 기자는 최근 역사학계에서 주목하는 가야사에 관심이 있었다. 반갑게도 '가야본성-갈(鎭)과 현(纒)' 전시에는 VR전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집에 굴러다니던 5,000원짜리 VR박스에 스마트폰을 끼워 넣은 뒤, 편안한

관람을 위해 침대 위에 앉았다. VR로 보는 전시는 색달랐다. 박물관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덕분에 마치 박물관에 들어가서 관람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를 보면서 더 자유롭게 내부를 구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회전 의자에 앉아 관람을 즐겼다. 360° 시선을 돌리며 내부를 보니 더욱 재밌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온라인 미술관에 접속했다. '미술관에 책'이라는 영상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전시된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큐레이터가 미술관을 직접 돌아다니며 현대의 서예·서예화 작품을 보여주고, 전시 의도와 작품 해설을 설명했다. 큐레이터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 평소보다 많은



▲기자는 VR기기를 쓰고 온라인 전시회를 직접 체험해봤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전시된 작품의 기교나 화풍 외에도 작품을 보기 위해 알아둬야 하는 배경지식도 설명해주어 흥미롭게 관람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직접 들어가 관람하는 것이 익숙했던 기자에게 온라인 관람은 신선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오프라인 관람의 현장감과, 큐레이터의 설명이 주는 친절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 사소한 일상을 특별하게, 어디갈래 챌린지와 한성 빙고

요즘 SNS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단어가 있다. 바로 '챌린지'이다. 우리말로 '도전'. 지금 SNS에 유행하는 수많은 챌린지들은 사소한 일상을 도전으로 만들어 코로나19가 주는 무료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대변한다.

기자 역시 다양한 챌린지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바로 눈이 간 것은 '어디갈래 챌린지'. 스노우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하나면 누구나 쉽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재밌는 챌린지다.

기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방문했던 치앙마이의 사원 모습과 현재 기자의 모습을 합성했다. 치앙마이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갈래 챌린지가 끝나고 다른 일에도 도전해보고자 인스타그램을 켰다. 우리대학에서 준비한 한성빙고에 도전해, 결과를 게시한 친구들이 눈에 띄었다. 한성빙고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일들을 얼마나 경험해왔는지 알아보는 빙고 게임이다. 기자 역시 스스로가 학교를 얼마나 풍부하게 겪었는지 궁금했다. 기자는 25개의 칸 중 4개를 제외하고 다 채웠다. 나도 대학에 와서 웬만한 건 다 해본 4학년이구나라는 생각이 뿌듯했다.



▲치앙마이에 위치한 사원과 기자를 합성해 봤다.



▲기자가 참여한 한성빙고의 결과다.

사소한 행동에도 도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특별한 행위가 된다. 기자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상에 '도전을' 붙여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 수 있었다.

## 스스로 만드는 성취감, 미누 마스크

Do It Yourself. 자신이 쓸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표어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선사하면서, DIY가 다시금 유행하고 있다. 기자가 택한 물건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필수 아이템, 마스크다.

기자는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 DIY 마스크 키트를 구매했다. 마스크 키트에는 겹감과 안감, 귀에 걸 끈과 코에 고정하는 와이어, 만드는 방법이 적힌 설명서가 동봉돼 있었다. 기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박스 안에는 재단이

전혀 안된 천이 담겨있었고, 집에는 재단용 가위가 없었다. 기자는 용기 있게 문구용 가위를 꺼내들고 걸감부터 재단하기 시작했다.

문구용 가위를 선택하는 게 아니었다. 천이 제대로 잘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바느질은 엉성했다. 마감처리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천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바느질을 하면서, 달고나 커피와는 다른 몰입의 재미를 찾을 수 있었다.

완성하고 보니 상당한 괴짜이 탄생



▲기자가 직접 만든 마스크

했다.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회용 마스크보다 영성해 보였지만, 내가 만들었다는 성취감이 그 영성함을 가려주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한 번쯤 해볼만한 도전이었다.

# “진심이 작품이 될 때 가지는 힘을 믿어요”

## 282북스 강미선 대표

우리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쉽게 아무는 몸의 상처와 달리 금방 아물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 바로 '마음의 상처'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굼아버린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안고 살아간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무엇일까? 시인 가나모리 우나코는 “흠에 새긴 글씨는 물에 젖으면 사라진다. 우리 내면의 상처도 부드럽게 다스리면 아문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내면의 상처를 아무만지는 출판사가 있다. 마음을 치유하고 진심을 전달하는 '282북스'다. 이곳의 대표 강미선(32) 씨는 소외된 이들이 진심을 드러내고 치유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 마음의 벽을 허물다

그는 처음부터 출판사를 설립할 생각이 없었다. 대학시절 공연기획을 전공했을 정도로 출판과는 관련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치료할 돈도 용기도 없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글쓰기와 독서였다.

“글쓰기와 독서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했어요. 덕분에 우울증에서 벗어났죠. 이 활동들이 마음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기획자로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방문객들과 글쓰기 치유 봉사활동을 했어요.”

강 대표는 도서관 봉사활동 중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의 치유 글쓰기 활동에 감화를 받았다. 피해 학생들의 상처가 드러난 글을 자신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보고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 학생의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근방 학교 담에 붙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 포스트잇을 본 한 해 학생이 그를 찾아왔다.

“그 학생은 자기 피해 학생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더라며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그저 상처를 진실한 문장으로 드러냈을 뿐인데 가해자의 마음까지 움직인 거죠. 그렇게 지금의 282북스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 작품에 상처를 담다

282북스는 원고를 투고 받아 출판하는 일반적인

출판사와는 조금 결이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가 만들어낸 '소외그룹'의 이야기를 예술 활동으로 사회에 반영한다. 그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소외그룹을 선정하고, 그들과 글쓰기 활동을 진행한다. 더불어 연기,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과 결합해 치유활동을 한 뒤 최종적으로 책을 출판한다.

“용기를 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도 보고 듣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게 바로 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상처를 책으로 표현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282북스의 역할입니다. 즉, 사회에 가려진 면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거죠.”

282북스는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시, 연극 등 또 다른 예술 활동으로 발전시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여기에는 치유만큼이나 공유를 중요하게 여긴 강 대표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공유를 통해 자신의 상처 치유뿐만 아니라 편견과 혐오가 섞인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꾸고자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6개월. 282북스는 한해에 2-3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그는 한 프로젝트에 그만큼 많은 애정과 노력을 쏟아내고 있다.

### 진심이 닿을 때까지

프로젝트가 끝난 후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말 한마디는 그에게 확신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줬다.

“누구나 쉽게 소외그룹에 포함될 수 있을 만큼 혐오와 편견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사람들이 소외그룹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282북스는 지하철 택배 노인기사, 폐지 줍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혐오와 편견에 맞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강 대표는 특히 폐지 줍는 노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노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마을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책에 담고, 사진전을 개최하는 프로젝트다.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대부분의 오프라인 모임이 취소되면서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도 힘 쓰고 있다.

그는 혐오와 편견에 맞서고 이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심이 작품이 될 때 가지는 힘을 믿는다'는 강

대표는 다음과 같이 282북스의 마지막을 꿈꾼다.

“282북스에서 282는 이파리를 의미해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파리인거죠. 사람들은 이파리가 달려있는 나무에서 쉬어가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면서 이용해요. 더 많은 이파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282개의 이파리, 즉 이야기가 모인다면 282북스의 소명은 끝나는 거예요.”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강 대표가 그동안 진행했던 '우리같이 행복하게', '도시의 문장들:귀천', 'FM36.9 도시라디오' 프로젝트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 대표가 감정 노동자들과 글쓰기 치유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강미선 대표

## 책의 권리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생존권입니다

# 2020 신학기 대학가 불법복제 해소 정책제안 공모전

2020. 3. 18(수) ~ 5. 18(월)

공모내용	구분	분야	대상
	정책제안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전국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생)
	표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표어	고등학생 이상 일반인

공모기간 | 2020. 3. 18(수) ~ 5. 18(월), 24시까지

접수방법 |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 www.spectory.net/kcopa/protection

문의사항 | · 운영사무국 : 02-6953-1310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불법복제해소공모전

주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제

48.1cm.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쓰인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길이이다. 이번 선거에는 자그마치 35개의 정당이 이름을 올려 역대 선거 중 가장 긴 투표용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당 혹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의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를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 과연 비례대표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일까?

## 비례성의 원칙과 사표 방지

18세기 말 프랑스 시민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 의회의 주권이 강해졌다. 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인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당시 학자들은 '비례성의 원칙'에 주목했다. 이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가 100석인 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때, A당의 득표율이 30%, B당의 득표율이 40%, C당의 득표율이 30%일 경우 A당이 30석, B당이 40석, C당이 30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득표한 수에 비례해 의석이 돌아갈 때, 공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다.

18세기의 주류 투표방식이었던 다수대표제는 비례성의 원칙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다수대표제는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모든 선거구에서 A당이 30%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당들이 모두 합쳐 70%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반영되지 못한 표는 사표, 즉 죽은 표가 된다.

사표를 줄이기 위해 절대다수제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절대다수제는 먼저 1차 투표를 통해 1위와 2위 후보를 정하는 방식이다. 1위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당선자가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뽑는다. 단관승부를 보는 것보다 사표를 줄일 수 있지만 1·2위 후보를 배출할 수 없는 군소정당의 득표는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프랑스의 니콜라 드 콩코르세 후작이 사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2명의 후보를 투표하는 제한투표제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안성호(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의 증가로 1인 1표라는 표의 등가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례성의 원칙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1821년 영국의 토마스 힐이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1842년 프랑스의 콩시테랑이 스위스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것이다.

## 사표를 방지하는 '단기이양식'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토마스 힐의 제안 이후, 그의 셋째 아들 롤랜드 힐이 채택되도록 해 1839년 당시 영국령이었던 호주 애들레이드시 평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다른 후보자에게 표가 이양되는 방식이다. 먼저 투표자는 후보의 선호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를 행사한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면, 투표자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후보를 1순위, 그 다음으로 원하는 후보를 2순위,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후보를 3순위로 적어서 표를 행사한다.

개표에 들어가면 당선이 결정되는 기준인 '쿼터(Quota)'가 등장한다. 쿼터는 당선하는데 필요한 득표수다. 쿼터가 100표를 득표하는 것이라면 한 후보가 100표를 득표함과 동시에 바로 당선이 된다. 당선자가 정해지면 모든 표에서 당선자의 이름이 지워진다. 만약 1순위였던 A후보가 당선이 됐고, B후보를 2순위로 정해줬다면, 이제 그 표는 B후보에게 돌아간다. 이런 방식으로 당선자의 이름을 계속 지워나가며 개표가 진행된다.

동시에 당선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후보, 즉 최하위 후보의 이름도 지워나간다. 의석수만큼 당선자가 나오면 개표는 종료

된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선호도를 통해 표를 행사해 1순위로 찍은 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아도, 2·3순위 후보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널리 퍼지지 못했다. 현재까지 호주나 아일랜드 몇몇 나라에만 적용돼 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기이양식은 자신의 표를 다른 후보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한계를 설명했다. 또 안 명예교수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이 원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단기이양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거대정당 중심의 대의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는 '정당명부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스위스에서 다수제 선거결과로 소외사태가 발생하면서 등장했다. 콩시테랑은 두 번의 선거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서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다.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된다. 두 번째 선거에서는 한 유권자에게 원내 정당의 투표용지가 들어오고, 이 투표를 통해 각 당의 당선자가 결정된다.

콩시테랑이 제안한 방식처럼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해서 원내정당이나 당선자를 정하는 것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된다. 안 명예교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지지율과 정당의 득표율, 의회 의석율이 가장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거제도"라고 평가했다.

콩시테랑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곧 전 유럽에 퍼지게 됐다. 1899년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가 진행됐고, 1920년대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선거제도로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처음 등장한 18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한 비례대표제. 더욱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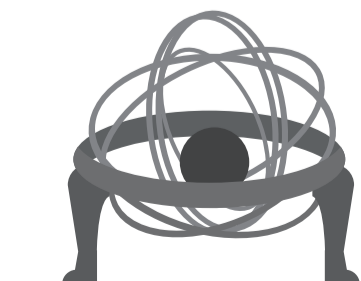
## 최기자의 사담

### 조선의 테크노크라트 이천

테크노크라트(Techocrat), 과학적 지식이나 전문적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사회 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농·공·상이라는 강력한 계급 질서 속 유교를 중시하고 기술을 천시한 조선에도 테크노크라트가 있었다. 그는 바로 이천(1376-1451). 한국 과학사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이다.

이천은 과학과 금속관련 기술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다. 이를 눈여겨본 세종대왕은 금속활자인 갑인자의 제작을 이천에게 맡겼다. 이천이 만들어낸 갑인자는 기존의 활자보다 훨씬 선명하고 바른 모양의 글자를 인쇄했다. 이는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었다.

갑인자의 제작 이후 이천은 세종의 지시로 천문관측기구 제작에 돌입했다. 그는 장영실과 함께 간의와 혼천의 제작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활약했다. 임종태(서울대학교 과학사및과학철학협동과정) 교수는 "이천과 장영실은 혼천의·간의·간의대 제작에 참여했다. 장영실은 기계 제작 분야에, 이천은 금속 주조에 두각을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역할을 분담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은 기술 개량에 도움이 된다면 당시 조선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했던 여진과 일본인의 기술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면모도 보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은 단련이 어려운 무쇠로 대포를 만들어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이천이 여진의 기술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장했다.

또한 이천은 무인으로서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세종 때 있었던 대표적인 군사업적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대마도 정벌에서 큰 공을 세워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임명됐고, 그의 말년에 이뤄진 여진 정벌에서는 대승을 거뒀다.

특히 「세종실록」에 따르면 이천은 군사 분야에서 자신의 기술력을 마음껏 뽐냈다. 그는 화포 개량, 선박 개량, 성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수행했다. 임 교수는 "그는 일종의 군사엔지니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천은 기술자이자 무인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임 교수는 "이천은 유교 경전과 시문을 짓는 능력으로 정부 관료가 되던 시대에 자신의 기술적 능력, 합리적 경영 능력으로 관료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드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기술의 향연이 벌어지는 현대사회에서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선 초기의 관료사회에서 그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술로 활약했다. 그가 남긴 결과물은 '조선의 테크노크라트'라는 그의 위명을 오늘날까지 밝게 비추고 있다.

최성훈 기자 csh8947@hanmail.net



### 빙판 위의 미묘한 마찰력, 컬링

"영미(스위핑을 준비하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전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른 단어다.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며 나아가는 스톤은 "영미 헐(스위핑을 세계, 빨리 하라)"과 함께 더욱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영미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팀킵'. 그들이 활약했던 종목, 컬링에 대해 알아보자.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은 4명이 한 팀을 이뤄, 하우스 중심에 많은 스톤을 놓는 팀이 승기를 잡는 구기 스포츠다. 선수들은 스톤을 던지는 투구자와 빗자루로 스위핑(Sweeping)하는 스위퍼(Sweeper), 전략을 세우 팀을 이끄는 스킵(Skip) 등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경기를 진행한다.

이들은 팀의 승리를 위해 '마찰력'의 원리를 이용한다. 마찰력이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는 마찰하는 두 물체의 면적에 비례하며, 운동하는 물체와 마찰하는 대상이 액체일 경우 고체일 때에 비해 작은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컬링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스포츠다.

컬링 속 마찰력은 투구자가 빙판 위에서 스톤을 던진 직후부터 나타난다. 얼음 위의 페블(Pebble)이라는 작은 얼음 돌기와 스톤 아랫부분의 미세한 흠집이 만나 마찰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스위퍼가 스톤 바로 앞 얼음에 얼마나 많은 횃수의 스위핑을 하느냐에 따라 스톤의 진행거리가 달라진다. 스위핑을 많이 할수록 얼음과 스톤 사이의 마찰력이 줄어들어 스톤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스위퍼는 빗자루로 얼음 표면을 쓸어 폐물을 녹인다. 이후 얼음 표면은 매끈해지고, 물이 형성된다. 물과 닿은 스톤은 단단한 얼음에 닿았을 때보다 훨씬 작은 마찰력을 받아 앞으로 잘 나아가게 된다.

스톤뿐 아니라 선수들이 신는 컬링용 신발에도 마찰력의 원리가 숨어있다. 선수들은 컬링용 신발 바닥을 두 가지의 재료로 구성할 수 있다. 이에 투구자는 한 쪽은 쉽게 이동하기 위해 테플론(Teflon)과 같이 마찰력이 작은 재질을, 다른 한 쪽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고무 재질을 사용한다. 어느 쪽에 어떤 재질을 배치할 지는 투구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오른손으로 스톤을 잡는 투구자의 왼쪽 신발 바닥은 미끄러운 재질이다. 이 경우 투구자는 오른쪽 다리를 뒤로 뺀고

왼쪽 다리로는 무릎을 세워 앞아 몸을 지탱한다. 이때 왼쪽 신발의 테플론 재질은 선수가 부드럽게 앞으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스위퍼들은 빙판 위에서 스위핑을 해야 하기에 신발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유리하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던진 스톤을 따라잡을 때에는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이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에 그리퍼(Gripper)라는 고무 재질의 덧신을 착용하기도 한다. 즉 마찰력이 커야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리퍼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도 마찰력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컬링은 빙판 위 마찰력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 얼음 위 마찰력의 미묘한 작용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스포츠, 컬링. 선수들이 보여주는 마찰력의 섬세한 변화에 주목해보자.

안현경 기자 dksgrud24@naver.com



### · 삼 학 송 ·

## 이제는 마음을 읽을 때

혼란의 시기다. 학기가 개시한 지 절 반가량이 지났음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 되지 않고 있다. 각 대학은 절반밖에 남지 않은 학기의 운영 방법과 이변학기 내 등교 가능 여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 처리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5월 5일까지로 추가 연장돼 혼란스러운 가운데, 본교는 지난 21일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시행'을 발표했다.

본교가 1학기를 전면 온라인 강의로 시행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적 재난 속에서 경영손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선불리 무언가를 결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학기 절반이 지났지만, 본교가 내린 결단은 칭찬할 만하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첫 공지가 게재된 2월부터 지금까지 교내 출입자 전원 검문 및 시설물 통제를 통한 예방대책 강구, 학생대표와 두 차례의 정기 간담회 개최 등 본교가 보여준 모습은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본교가 학생들의 불만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늦은 공지로 잦은 비판을 받았다. 학내 커뮤니티는 늘 공지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문외해도 본교는 늘 추후 공지에 예정이라고 일관하며, 학생들을 무기한으로 기다리게 했다. 이에 '한성대학교'만의 고유 방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타대학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샀다.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을 테지만, 학생들에게는 조심스러움을 넘어 위축된 행보로 보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최적의 공지 시기를 읽지 못한 것이다.

3월부터 꾸준히 언급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서도 본교는 현재까지 답답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제2차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에서 본교는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나, '예산이 남으면'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예산이 남으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예산이 남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논리다. 하지만 학생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조건부 답변이 아니다. 학생들은 당장 학내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는 것을 손해라고 느끼고 있다. 학교는 금전적인 손실이 아니라 학생들의 손해에 집중해야 한다.

이같이 본교가 학생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기업가' 입장만을 고수하니,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불만과 답답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본교는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결정한 지금부터라도 '교육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손해'라고 느끼는 학생들의 불만을 최대한 달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장선아 편집국장



## 그들은 무엇을 가리는가?

지난 12일, 성북구 정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진행했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예배모습을 담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이에 교인들은 '예배와 집회는 다르다'는 내용의 피켓을 높게 들어 예배하는 장면을 필사적으로 가렸다. 예배는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예배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숨기는 교인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 피켓의 벽을 만들었을까? 최성훈 기자

### ■ 의화정

코박 10년 전의 일이다. 눈이 펄펄 쏟아지던 날 발뚎까지 잠기는 눈이 반가운 마음에 조금 들떠있었다. 아무도 밟지 않았던 길에 담뱃대며 발자국을 남기다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리가 부러지고, 119가 출동했다. 그날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한쪽 다리를 못 쓰다보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부터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두 발로 온전히 땅을 딛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그 일상이 그때만큼 질질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 평온한 일상이 깨져 내 손을 떠나버렸을 때 비로소 일상의 소중함이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도 달라졌다.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교육의 현장도 많이 달라졌다. 온라인 강의 6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카메라 앞에서

### 코로나19와 교육의 본질

내 모습이 익숙하지 않다. 학생들에게도 대학교 수업을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온라인 수업 1·2주차 때에는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데 급급해 강의실에서 수업할 수 있기만을 고대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내게 던진 물음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이 날이 발전해 가는 시대에 많은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신기술의 등장으로 미래의 교육 현장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강의실 수업의 소중함'을 떠올릴 때가 많아졌다. 학생과 교수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이야말로 변할 수 없는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술의 발달은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교육의 중심에 서지는 못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도,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고 해도,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업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그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노정은(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한국어교육) 교수

### 낙산만평

주진술 기자



### ■ 기자수첩

지난 1월, 청년에 관한 최초의 종합 법안인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규정하고, 청년의 고용·창업·주거·복지·문화활동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됐지만 2016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다시 발의됐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같은 여야 정쟁에 밀려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졌다. 19대 국회 때와 같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50여 개의 청년단체들이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 '청년기본법 제정을

### 청년정책의 주체는 청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연석회의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된 간담회와 1만여 명의 지지를 얻은 서명운동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된 202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통과촉구선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열망을 전달했다. 꾸준한 노력이 '법안 통과'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기자는 연석회의의 결실을 보면서 청년의 외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동시에 청년들이 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인들은 청년이

필 원하는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심성 청년정책을 펼친다. 선심성 정책은 멀리서 보는 정치인들에게 희극이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에게는 변하지 않는 비극적인 현실을 가져다줄 뿐이다. 그래서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청년이 청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기본법』에는 국무조정실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에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년의 목소리가 청년정책에 반영될 발판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청년은 이러한 발판을 딛고 청년정책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최성훈 기자

### 기자사령

- 임 수습기자 이슬비(인문 1) 조정은(인문 1) 김선우(IT 1) 주진술(IT 1) 김대건(상상력 1) 이민경(상상력 1)

### 동정란

홍승린(사회과학부) 교수  
홍 교수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2020년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

### ■ 낙산에 올라

사월의 한 가운데,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해가 이제는 제법 따스하다. 일어나 보면 두터운 이불은 발길질에 한 모퉁이씩 접혀있고, 얼마 전부터는 전기장판도 잘 켜지 않는다. 한 겨울에나 입었던 옷은 이미 하나 둘씩 장롱 안을 차지하고 있다. 벌 없는 곳에서 퀘퀘해진 옷에는 유연제 향을 입혀 마지막 겨울을 털어내고, 잘 펴서 건조대 위에 누이면 어느새 나의 방에는 자그마한 봄이 들어와 있는 것만 같다.

길가에는, 온통 푸른빛이다. 형형색색으로 흐드러지던 순간이 착각이었던 것처럼, 나무에는 싱그러움 푸른 잎만 돌아 있다. 해를 받으며 걷다 보면 문득 겨울은 까마득할 따름이고, 봄이라 할 만한 것은 벌써 저만치 멀어진

### 봄을 기다리며

것 같다. '봄' 유달리 낯설다. 잠시 꽃잎으로 화사했고 보드라웠지만 진정 봄이 왔던가 싶어 보면, 전혀 봄답지가 않기 때문이다. 겨울보다 움츠러, 빼곡히 말라있던 기억의 나날.

따사로운 아래서도 느껴지지 않는 봄. 그것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일상, 그 결핍의 현재에 있다. 지금의 봄은 텅 비어있기만 하다. 시간은 자꾸 흘러만 가는데 가만 주위를 살펴보면 사월은 아직도 한겨울에 멈춰 있는 것만 같다. 흠날리는 꽃잎이 아릅답다 한들 '우리' 없이 어찌 풍경 그 이상일 수 있을까. 고요한 도시와 불빛이 밝혀지지 않는 교정(校庭). '봄'에 대한 기다림이란, 계절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 계절을 향유하는 우리에게로 뻗어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닫는 요즘이다.

이제는 여름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임에도, 나는 여전히 봄을 기다린다. 다시 길목이 두근거리므로 가득할 날을, 살랑이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북적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막연함 속에서도 이 비바람을 놓지 못한다. 그 시절이 가져올 생기와 살아있음으로 인해, 늦은 봄일지언정 그 짧은 인사만으로 시간에 어린 한기는 한순간에 녹아내릴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그 순간, 봄의 풍요 속에서 한 해의 시작은 다시 그려질 것이므로, 기다림의 끝에 맺힌 싱그러움은 곧 피어나리라.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의 기다림을 더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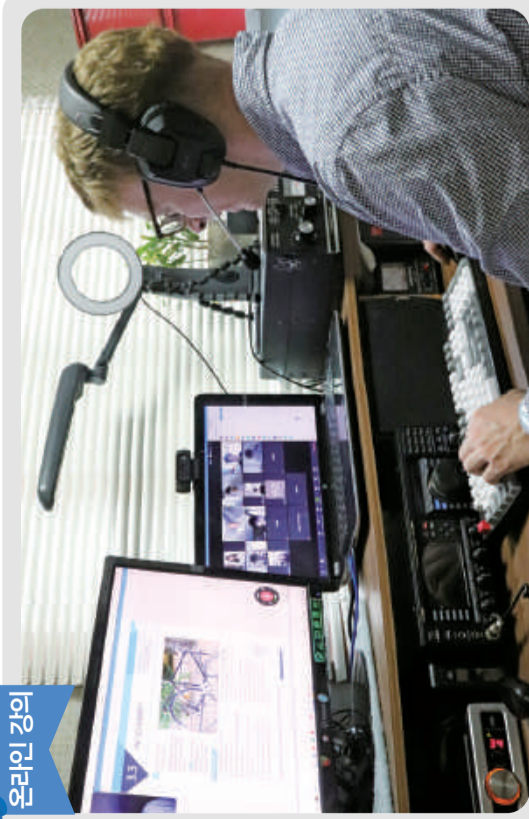
최준수(대학원 한국어문학 1)

# 한성대, 사회적 거리는 넓게 안전과 거리는 좁게

<편집자주>

지금 학교엔 새학기의 활기 대신 적막함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번에 새내기로 입학한 기자들 역시 허탈하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마냥 우울해하고 원망할 수만은 없다. 학내 곳곳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밖에. 과연 학내 구성원은 학교를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지켜내고 있을까? 한성대신문사의 새내기 기자들이 학내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했다.

온라인 강의



테크 피츠너(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가 자택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교는 지난 3월 개강한 이후로 온라인 강의를 계속해서 시행해왔다. 교수들은 강의실·사무실·자택 등지에서 강의를 촬영한 뒤 업로드하거나, 실시간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건 기자 daegungod@naver.com

정문



본교 캠퍼스 직원이 정문 출입구에서 학내 구성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학내 구성원은 교내에 출입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외부인의 경우 출입시간, 방문목적, 방문장소 등의 정보를 자기정보소에 비치된 방문일지에 작성해야 출입할 수 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우천관 중문



본교 교직원들이 우천관 중문에서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본교 구성원의 경우 신분 확인 및 체온 측정, 외부인은 방문일지까지 작성해야 출입할 수 있다. 교직원들은 차량 출입 통제 업무 근무표에 따라 번갈아가며 통제 업무를 진행한다.

김준수 기자 jso053493@gmail.com

학생식당



학생과 교직원이 가림막이 설치된 학생식당에서 일별도 식사하고 있다. 학교는 소독 및 방역작업, 발열 감지기 설치, 좌석 일렬화, 좌석 당 가림막 설치 등을 시행해 학생식당을 관리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ridjritf@naver.com



학술정보관



본교 재학생이 학술정보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도서를 대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2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대출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용자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글 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안내 문자에 따라 학술정보관 로비에서 도서를 수령할 수 있다.

주진솔 기자 tvoxo@naver.com

외국인기숙사



학교가 코로나19 자기격리 대상자인 본교 외국인유학생을 위해 준비한 마스크다. 학교는 외국인유학생들의 격리를 위해 물품 키트, 즉석식품 등 각종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기숙사 3개의 관 중 '글로벌빌리지 1'에서는 격리조치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해 3·6층의 모든 방을 1인 1실로 조정해 임국자 전용 격리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selbee01@gmail.com

탐구관



근로 학생들이 탐구관 1층에서 코로나19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탐구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책상 우측에 비치된 자가 진단 테이블 검진 순서에 따라야 한다. 탐구관 2층에는 온라인 강의 시청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전산실습실이 마련돼 있다. 전산실습실에 출입하려는 학생은 손 소독과 발열 체크를 진행한 후 긴 강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민경 기자 mk49119@naver.com